제11차 IAEA 기술전시회 암치료실행계획(PACT)기금 전달식

박 창 호*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국제협력실 실장

제11차 IAEA 기술전시회

제11차 IAEA 기술전시회 설명회가 지난 9월 19일(화) 오후에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총회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원자력현황을 소개하고 원자력 공동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7년 IAEA 창립 40주년 기념 패널 전시를 시작으로 11주년을 맞은 금번 기술전시회는 「방사선 융합 기술, 밝은 내일로 향한 길(Radiation Fusion Technology, Road to Find Tomorrow)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IAEA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의 방사선 이용 기술(비발전) 발전 현황을 소개하면서 원자력이 에너지원으로서뿐 아니라 농업・공업・의학・환경 분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IAEA와 회원국 간 협력 증진 및 한국의 방사선 기술 현황을 소개하는 패널을 전시하여 회원국들의 남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영상물과 패널에서 한・IAEA 협력 50주년 기념 사진 및 비발전 분야 기술 현황 관련 사진 등을 소개하여 한국의 발전된 방사선 기술을 부각시켰다.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김성환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비롯한 한국대표단 및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IAEA 관계자가 제11차 기술전시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시물로는 방사선 방호를 위해 개발된 생약 조성물로서 면역 조혈계에 재생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회복을 촉진시키는 헤모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미백, 항산화 기능 향상 화장품 및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쌀, 조직 배양 기술과 방사선 조사 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희귀 난(蘭), 암치료를 위해 개발된 사이클로트론이 전시되어 총회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학사, 석사 / 프랑스 Montpellier대 국제법(원자력) Diploma / 한림대 국제대학원 국제회의 고위과정 수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협력팀장(1995~2005) / 한국원자력국제협력재단 국제협력실장(2006~)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김성환 주오스트리아 대사를 비롯한 한국대표단 및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과 IAEA 관계자가 제11차 기술전시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희귀 난으로 우리 민족의 고대이름인 '동이족'에서 유래한 동이와 은빛 눈이란 의미인 '은설'이라는 이름의 난이 전시되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한 국산 감성 로봇 '멍(MUNG)'이 원자력 홍보 대사로 활약했다. 멍 로봇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단어에는 오렌지색으로 반응하고 반대로 비평화적 이용을 연상시키는 말에는 파란색의 멍으로 반전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감성 로봇 멍은 IAEA 사무총장은 물론 회원국 대표들과 전시장을

원자력연구원의 유승호 연구원이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에게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다

'멍'을 디자인한 곽소나씨가 엘바라데이 사무총장 앞에서 멍의 반응을 시연하고 있다

'멍'은 우리나라 고유의 소재인 계란, 도자기, 찐빵의 모양을 하고 있다

찾은 방문객들에게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핵투명성 의지를 알리는 한편 국내 한류 로봇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예상 외의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100여명의 총회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방사선융합기술을 널리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PACT 기금 전달식

이번 IAEA 정기총회 기간 중, 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국장은 암치료실행 계획인 PACT 사무국을 방문해 한국에서 모금한 1만불을 PACT 사업에 기부했다. 김영식 원자력국장은 "1만불 기금은 작지만 의미있는 시작"이라며 "1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자발적인 모금에 의해 모여졌다." 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금년 7월 '한-IAEA 50주년 기념 행사' 를 통해 모금 행사를 시작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암 퇴치를 위해 월 1불(1,000원) 정기 후원자 1,000명을 확보를 단기 목표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영식 국장은 이러한 정기 후원자 확보로, 한국이 IAEA의 정기 후원 국가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한국의 기부금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한 IAEA 버카트 사무차장은 "이 1만불이 법인이나 정부, 기관이 아닌 개인들이 힘을 모아 기부한 대표적인 첫 사례로, PACT의 향후 자발적 기금 모금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조촐한 기념 전달식을 마치며, 김영식 국장은 암 치료 사업에 응용될 수 있는,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싸이클로트론을 소개하며, 암 치료 사업을 위해 향후 기술적인

과학기술부 김영식 원자력국장과 IAEA 과학응용부 부카트 사무차장

지원의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총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개발도상국의 암 치료를 위한 PACT가 일궈낸 국제적인 노력을 돌아보기 위해 총회장에서 'PACT의 날' 이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프랑스는 본 PACT사업에 초기 단계부터 협력해 왔음을 밝혔으며, 프랑스 국립암센터에서 발간한 32개 국가의 사례를 다룬 '아프리카의 암에 대하여' 라는 책을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인도가 바바트론 II 치료기기 (Bhabhatron II Teletherapy machine)를 PACT의 6개 시범 사업 지역 중 한 곳인 베트남에 기부했다.

우리나라 대표단과 PACT사무국 직원들간 기념 촬영